

정직한 제품 통해 소비자 보호

정품인증 라벨 '라스테이프' 개발



정 용 권

(주)라스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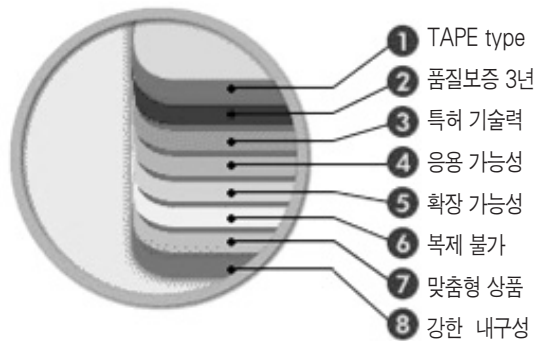
최근 롯데제과의 빙과류 '설레임' 짹통 제품이 중국에 등장해 관련업체를 당혹케 한 사건이 있었다.

'설레임'은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치어팩을 도입해 샤베트 형태의 아이스크림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제품으로 첫해 2백80억원, 이듬해 3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매출이 5백억원에 달하는 최고 인기 제품이다.

그동안 오리온 초코파이 등 과자류나 농심 신라면 등의 짹통류가 등장한 적은 있었지만, 빙과류 짹통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장 디자인을 똑같이 베끼고 상호와 제품명이 인쇄된 자리만 현지어로 바뀌었다. 너무 정교하게 모방해서 마치 수출 제품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롯데제과는 이 제품에 표기된 상호를 추적해 제재할 방침이지만 단속이나 제재를 가하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의 가치가 인적, 기술적 생산기반의 가치를 훨씬



▲ 라스테이프 기술



▲(주)라스켄의 라스테이프

뛰어 넘는 시점에서 모조품에 대한 제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종래에는 가전제품, 고가명품, 담배, 신발 등이 주요 제품으로 모조품이 널렸었지만 최근에는 식품 및 제과뿐 아니라 포장디자인까지 버젓이 베끼고 있어 우리 포장산업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포장업체는 저가(低價)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기술력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적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짝퉁 제품이 그러하듯

이 외형은 제품의 생산자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품과 흡사하나 그 내용물과 구성에 있어서는 위험한 재료와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포장에서도 모조품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정품인증 기술 개발 전문업체인 (주)라스켄(대표이사 정용건)은 위조품 및 모조품이 시장을 잠식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제조자 중심의 정품인증 방식에서 탈피, 테이프식으로 제작돼 소비자들이 직접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품인증 라벨 '라스테이프'를 개발, 생산했다.

라스테이프는 원자재를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해 원가를 낮췄으며, 내마모성이 뛰어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등으로 코팅·증착·숙성(50℃에서 72시간)시켜 제작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특허출원 중인 제품으로 법적이나 기술적으로라도 불법복제가 불가능하다. 또 활용을 원하는 제품에 맞게 크기와 형태가 변형이 가능하며, 인쇄된 브랜드 로고 등이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LASCHEM

기업에서 라스테이프를 만든 라벨을 제품 포장박스나 제품 겉면, 품질보증서 등에 부착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개봉하면서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라스테이프의 외부에 제공자가 지정하는 텍스트, 이미지, 바코드 등 홍보와 유통관리에 필요한 공간의 제공은 라스테이프의 또 다른 장점이다.

특히 라스테이프는 최종 소비자가 직접 개봉하면 노출이

되는 순간 파괴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테이프를 점착력의 점도에 의한 파괴형이 아닌 복합 수지의 코팅에 있어서의 각기 다른 물성의 반응 상용점을 이용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첨단기술 정품 확인용 테이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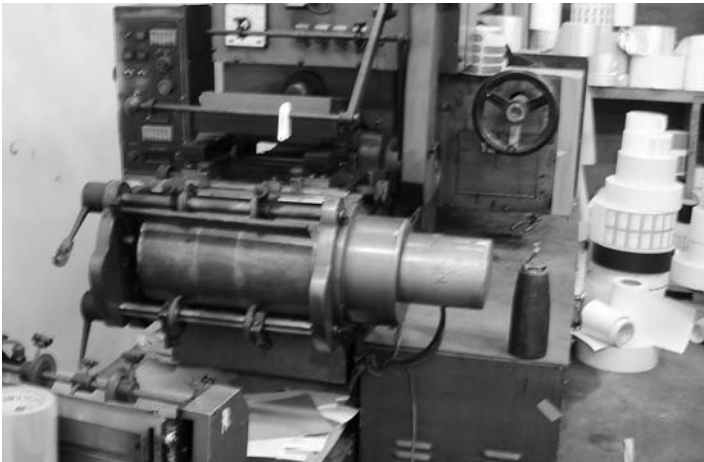
그동안 짝퉁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은 정품을 인증하는 기술로 가장 널리 알려진 홀로그램을 비롯해 RFID(무선 주파수식별)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정품 확인 방법 등 다양

한 대안을 강구해 왔다.

위기에 처한 홀로그램의 대안으로 유티쿼터스 시대를 맞아 각광받고 있는 RFID도 정품인증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인삼공사는 중국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짝퉁 '정관장'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출용 제품에 전자 암호가 삽입된 RFID 칩을 부착했다. 하지만 홀로그램의 대안으로 등장한 정품인증 기술들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뿐더러 생산자 중심의 정품 확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용건 사장은 "기업만이 확인 할 수 있는 정품인증 기술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정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스테이프는 현재 수출되고 있는 신발, 의류, 시계, 화장품뿐만 아니라 FDA(미국식



▲(주)라스켄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 라스테인프 적용사례

품의약국)의 승인이 필요한 식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케미칼 분야에 20년 이상 몸담아온 정 사장은 우연히 유럽여행 중 면세점에서 사온 물건이 모조품인 것을 뒤늦게 알고 정품인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프로젝트를 직접 착안했다고 한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공장 과 서울 광진구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주)라스캠은 정 사장의 지휘아래 14여명의 직원들이 5여년동안의 준비기간을 통해 라스테인프를 개발, 올해 1월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큰 방향을 일으켜 여러 매스컴에 소개 되며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정 사장은 “라스캠은 신뢰받는 기업이 정직한 제품을 제조·유통하며 올바른 정보로 소비자에게 제공,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의지로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라스캠은 수년간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홀로그래프와 기타 수지의 화학적 물성을 이용한 라스테인프를 개발, 수많은 조건과 방식의 테스트를 거쳐 결국 세계 각국에 특허를 출원하게 됐다.

정 사장은 “위조품은 전 세계 물품 교역량의 7% 이상을 차지하고, 그 규모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서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로 인한 브랜드 가치의 하락은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스테인프를 도입하는 기업은 소비자가 정품확인 단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실추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빛과 소금을 의미하는 LAS(Light and Salt)Chem. 소비자에게 신뢰 받음으로써 믿음의 사회를 선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정용건 사장.

전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짝통과의 전쟁은 (주)라스캠이 있는 한 조금씩 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

이한얼 기자